



즉시 배포용: 2020년 1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연대 행진(SOLIDARITY MARCH)에 참가해 비공립 학교 및 문화 센터를 포함하는 뉴욕의 종교 기반 시설 보호에 4,500만 달러의 추가 기금 지원 발표

잠재적인 혐오 범죄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종교 기반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기금

잠재적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주 경찰 신고 전화 1-877-NO-HATE-NY 신설

주 전역의 정교회 유대인(Orthodox Jewish) 지역에서 주 경찰 순찰 지속 실시

오늘 뉴욕시에서 열린 "노 헤이트, 노 피어(No Hate. No Fear)." 연대 행진(Solidarity March)에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혐오 범죄에 대응하여 비공립학교와 문화 센터를 포함한 뉴욕의 종교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4,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금은 뉴욕의 지역사회 혐오 범죄 보호 기금 프로그램(Securing Communities Against Hate Crimes Grant Program)의 [신청 \(Request for Applications\)](#)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7년 Cuomo 주지사가 설립한 이 프로그램은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비영리 보육 센터, 커뮤니티 센터, 문화 박물관, 주간 캠프 및 비공립학교에 대한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이데올로기, 신념 또는 사명으로 인해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개시 이후,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주정부 자금 2,500만 달러를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이 편견이나 차별을 겪을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고 전화(1-877-NO-HATE-NY)을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주 경찰(State Police)가 주 전역의 정교회 유대인(Orthodox Jewish) 지역에서 순찰과 단속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뉴욕을 비롯한 전국에서 반유대주의와 다른 혐오로 인한 공격이 발생해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협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분열과 공포를 야기하여는 사람들에 맞서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신규 자금 지원은 종교 및 문화 시설에 스스로를 지키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혐오와 불관용이라는 암이 우리를 쪼먹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혐오와 불관용이 추악한 머리를 들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서서 이를 비난할 것입니다."

혐오 범죄 통계에 따르면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지역사회에 대한 혐오 범죄가 전국적으로, 또한 뉴욕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뉴욕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의 절반 가량이 유대인 지역사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피츠버그의 생명의 나무 회당(Tree of Life Synagogue)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이 발생했으며, 최근 뉴저지 저지 시티의 코셔 시장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으로 예시바 학교 및 가톨릭 학교가 총격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반유대주의와 폭력적인 극단주의로부터 유대인 기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뉴욕주 예산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the Budget)이 운영하는 이 보조금은 각 자격을 갖춘 시설에서 추가로 보안 교육, 카메라, 출입문 보강, 조명 설비 개선, 최신 기술 도입, 및 기타 관련 경비 체제 향상을 위한 예산을 최대 50,000 달러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 곳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들은 최대 다섯 개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2017년 10월 발표한 이 프로그램은 뉴욕의 혐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주지사가 시작한 시작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욕에서 편견에 의한 위협, 괴롭힘, 폭력으로 발생하는 최근의 사건들을 줄이기 위해, 혐오범죄 태스크포스(Hate Crimes Task Force)을 설립했습니다. 뉴욕주 경찰(State Police),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 형사사법서비스국(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는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서, 혐오를 동기 삼아 유발된 범죄 및 편견과 관련된 추세, 지역사회 취약성, 차별 관행 등을 파악하고 수사하기 위해, 현지 이해관계자 및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 뉴욕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 핫라인 및 문자 회선을 만들었습니다. 전화 번호는 1-877-NO-HATE-NY이며 핫라인을 운영 중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